

#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여성 캐릭터 묘사

- 영화 「Love & Pop(1998)」과 「신고질라(2017)」의 비교를 통해 -

나은수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2016102551)

## 1. 서론

한 영화에 대한 감상, 감독에 대해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나는 안노 히데아키의 <러브앤팝>을 감상하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우울하고, 너무 잔인하게 현실적인 작품이라고 느꼈다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희망을 제시하는 히데아키 감독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앞선 발표에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영화를 보고 일본 사회가 인간 소외를 인간 소비, 즉 원조교제, JK 비즈니스 등 여성의 성상품화를 이용하여 해소하려는 모습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도쿄 아이돌즈(2017)>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파헤쳐 보았다. 하지만 나는 발표 이후 한 가지 의문점에 도달하였다.

나는 <러브앤팝>의 결말을 보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왜 어떤 사람의 시선에선 그와 정반대인 희망적인 감정을 느낀 것인가? 과연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어떤 연출적인 면, 또는 영화의 구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것일까?

나는 이를 감독의 대표작인 에반게리온 시리즈와 <러브앤팝>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탐구하려 했으나, 몇일 동안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감상한 결과, 이 시리즈의 이해를 위해선 전 시리즈의 시청 및 방대한 세계관의 세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 애초에 애니메이션 작품과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 사이의 비교에는 인물 작화, 연출 방식의 실질적인 한계 등 비교하기 애매한 점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에 그의 다른 실사화 작품인 <신고질라>와 <러브앤팝>의 비교를 통하여,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여성 캐릭터 묘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그리고 이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 2. 본론

### 1) <러브앤팝>의 구조 및 테마 분석

### ① 줄거리 요약

- 고등학생인 히로미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친구들과 수영복을 사기위해 시부야에서 만난다. 히로미는 백화점에서 12만 8천엔인 토파즈반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 어떻게든지 오늘내로 반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히로미를 위해 친구들은 같이 가라오케를 가면 돈을 주겠다는 아저씨와 함께 가라오케를 가고 12만엔을 번다. 하지만 히로미는 그 돈을 친구들과 나눈다.
- 가게가 닫히는 9시까지 모자란 돈을 구하기 위해 히로미는 혼자 남아서 원조교제를 한다.
- 함께 편의점과 비디오 대여점을 가면 돈을 주겠다는 남자를 만나지만, 그 남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히로미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히로미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뛰쳐 나온다.
- 다른 상대를 찾던 도중 캡틴XX라는 남자를 만나 러브호텔로 가게 되지만 그는 히로미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밀며 "네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때, 누군가는 죽을만큼 슬퍼할꺼다"라며 야단을 친다.
- 결국 9시가 넘어 반지를 사지못한 히로미는 게이 남성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곤, 집으로 돌아온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그리고 다시 이상한 꿈을 꾸다.

### ② 구조 분석

영화 <러브앤팝> 자체의 흐름은 정확히 어떤 형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 히로미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시부야에 갔다가 토파즈 반지를 사기 위해서 원조교제를 하며 돈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순행적인 진행을 유지하지만, 영화 중반부엔 친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갑자기 친구들과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종의 액자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③ 테마 분석

누군가가 계속해서 히로미와 친구들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지켜보듯, 관음하는 것 같은 카메라 구도를 이용하였다. 종종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처럼 그려졌으나, 옷을 갈아입거나, 히로미가 자전거를 타는 등 많은 부분에서 카메라가 히로미의 치마 속을 애매하게 노출시키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관객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또, 원조교제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인데, 여고생과 남성들의 만남을 너무 과감 없이, 날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유발한다. 캡틴 XX이 히로미에게 항 행동은 범죄 행위인데, 핸드폰 주인인 남성은 히로미에게 그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말하면서 캡틴 XX의 행위를 미화시킨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히로미는 다시 이상한 꿈을 꾸는 내용과, 엔딩 크레딧에 흘러 나오는 노래는 기괴하리 만큼 밝은 느낌을 띄고 있다. 나는 이를 버블경제 이후 사회를 비꼬는 감독의 의도라고 해석했으나, 어떤 사람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앞에선 사회 비판을 하지만 결말 부분에선 결국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고 해석한다.

### 2) <신고질라>의 구조 및 테마 분석

## ① 줄거리 요약

- 하네다 해안에서 한척의 요트가 발견되어 조사 대원들이 이를 조사하지만 빈 요트만을 보고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바닷물이 끓어오르며 엄청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고, 해저터널엔 균형이 생긴다. 정부는 이 상황의 원인을 화산 분출으로 추측한다.
- 야구치 란도는 이를 미확인 괴생물체라고 주장하지만 무능한 정부는 이러한 야구치의 의견을 기각하고, 계속 무의미한 회의만을 지속한다. 그 와중에 괴생물체는 제 2 형태를 띈다.
- 학자들 또한 원론적이고 쓸모 없는 소리만을 반복하며, 괴물이 일본에 상륙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억측을 내놓는다. 반면에 환경성의 히로미는 충분히 육지에 상륙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지만 무시 당한다. 그 와중에 괴생물체는 제 3 형태를 띠고 카마타에 상륙하여 폐해를 만들고 있다. 총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상황을 선포, 자위대가 출동한다. 고지라를 향한 공격 직전 피난민이 발견되어 작전은 중단된다.
- 야구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히로미 등을 포함한 각 분야의 이단아들을 데리고 거대 불명생물특설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일명 거재대에서는 고지라의 원동력이 핵분열임을 알게되고, 고지라의 움직임에 따라 도쿄 시내의 방사능 수치가 달라진다. 고지라는 체내에서 액랭식으로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데, 거재대는 역으로 이를 이용하여 체내 냉각 시스템을 혈액 응고제로 강제 종료 시키기 위한 “야구치 플랜”을 구상한다.
- 야구치는 미국 대통령 특사로 도착한 카요코 앤 패터슨을 통해 고지라의 대략적인 탄생 일화, 이를 미리 예견 했던 마키 고로 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마키 고로 교수는 현재 실종 상태, 그가 남긴 자료들을 거재대는 열심히 분석한다. 그 와중에 고지라는 제 4 형태로 재등장한다.
- 자위대의 공격으로 고지라는 생명이니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정부와 군대는 참혹한 패배를 겪고, 이후 미군과 손을 잡지만, 고지라는 대공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시 진화해 입, 등에서 보라색 빔을 쏟아낸다. 이로 인해 정부의 수뇌부와 총리가 전원 사망하면서 상황은 더 혼돈으로 치달는다.
- 임시 총리가 세워진 상황에서 대책 본부는 최대한 빠르게 고지라를 냉동 시킬 물질을 찾는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보고 미국 및 UN에선 고지라를 핵무기로 사살할 것을 발표한다. 그 사실을 들은 야구치와 대책 본부는 주민 대피 기간 동안 야구치 플랜을 완성시키려한다.
- 대책 본부에선 드디어 마키 교수가 남긴 데이터의 형태 파악을 가능하게 되고, 전 세계의 슈퍼 컴퓨터를 병렬 연결하여 냉동 물질 계산을 가속시킨다. 야구치 작전을 완성하고, 결국 고지라를 냉각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 ② 구조 분석

괴수 영화이자 일종의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영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다. 대신 앞선 장면에서 왜 들어간 것인지 모를 장면들이 영화가 진행 될수록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 이루어져 있다. 이 또한, 미확인 생명체와 싸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인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지켜 보는 것이 영화의 주요 플롯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성된 구조라고 본다.

### ③ 테마 분석

이 영화의 메인 테마는 <러브앤팝>처럼 원조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불가능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영화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두 여성 캐릭터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두 여성 캐릭터는 카요코 앤 패터슨과 환경성의 히로미이다. 카요코 앤 패터슨은 미국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온 캐릭터이고, 환경성의 히로미는 주인공인 야구치 란도가 이끄는 해결팀 중 한명이다. 영화에서 카요코 앤 패터슨은 굉장히 화려한 외모에 걸치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거만한 여성이다. 미국 대통령 특사라는 엄청난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명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김치녀’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진다. 반면에 환경성의 히로미는 화장기가 전혀 없는, 열심히 자료 분석과 지식을 이용해 고질라 상황의 해결에 이바지 한다. 히로미 또한 전형적인 ‘공대녀’의 느낌으로 묘사된다.

### 3)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여성 캐릭터 묘사

<러브앤팝>에서는 원조교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고생들을 중점으로 두어 플롯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는 1998년도 원조교제를 다루는 작품 치고는 꽤나 앞선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몰래 카메라, CCTV를 보는 것 같은 원조교제 장면의 카메라 구도, 여고생들의 치마 속을 애매하게 비추는 화면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만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로 감독은 마지막에 게이 남성을 통해 버블 경제 이후 사회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의견을 드러낸다.

“너 자신을 아끼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캡틴 XX의 행동 이후에 그를 마치 합리화하는 것만 같은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히로미가 필름통을 열었을 때 “너에게만 파즈볼의 진짜 이름을 알려줄게, MR. Love&Pop”이라는 플롯은, 마치 폭력을 가해한 피의자가 ‘너에게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인 것’이라는 가해자 옹호 또는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 감독이 이를 2차 가해를 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인지, 아님 정말로 “너 자신을 아끼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지 내가 감독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관객 입장에서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이 장면도 한 몫했을 것이다.

이후 히로미가 꾸는 이상한 꿈과 엔딩 크레딧 부분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길 끝엔 냉장고가 있었는데 안에는 얼어붙은 개들이 있었다. 제일 가까운 개를 안아주었더니 꼬리를 흔들며 행복하게 짖곤 내 품에서 녹았다.’ 라는 내용인데, 나는 이를 버블 경제 때에 향수를 느끼는 일본인의 모습으로 해석하였지만, 어떤 이는 ‘개가 행복하게 짖고 품에서 녹았다’ 그래도 제 자리를 찾아갈, 회복할 수 있는 일본의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딱 영화를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히로미가 가라오케에서 나오 대신 전화로 원조교제 메시지를 남긴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화면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기억해야하는데, 이때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히로미와 친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곤 한다. 결국 감독은 원조교제의 성행 이유를 버블

경제의 붕괴로 보고 있다. 행복했던 때의 향수 즉, 버블 경제 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장면엔 원조 교제 메시지를 보이스 오버로 넣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영화 내에서 ‘행복하다’라는 상태 자체가 정상적인 범주의 행복하다고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없다고 본다.

같은 맥락으로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 노래와 더러운 하수구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히로미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대단한 사랑을 다시 한 번”, “우린 그 시절을 아름답다 했지만 함께 했던 우리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못오겠죠”라는 가사와 양 옆에 허름한 건물들을 끼고 있는 하수구에서 촬영을 했다. 감독이 여기서 넣은 노래의 의미는 명백하게 버블 경제와, 버블 경제에 향수를 느끼는 일본인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 내놓아진 여고생들의 모습을 양 옆에 낡은 건물을 낀 하수구에서 히로미와 친구들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저 분위기가 밝아서, 딱 봤을 때 가사가 긍정적인 것만 같아서는 히로미의 꿈과 엔딩 크레딧을 항상 마무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특성으로 정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신고지라>에서는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 상반된 두 여성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 키요코 앤 패터슨의 캐릭터 빌딩 자체가 영성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녀의 역할, 그녀의 행동의 개연성 등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를 처음에 홍보했던 방식이나, 공식 사이트에 보면 키요코 앤 패터슨이 주연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키요코는 영화 시작 후, 36분 이후 처음 등장하고, 등장 방법 또한 빗겨 나갔다. 미국 대통령 특사로 도착한 사람이 야구치에게 사건의 브리핑 이후 “파티하고 바로 오느라 옷도 못 갈아 입었잖아. 여기 자라가 어디 있어?”라는 전형적인 미국의 ‘금발 여성’ 스테레오 타입 다운 대사를 시킨다. 그런 그녀의 행동을 보는 관객은 과연 그녀가 어떤 노력을 통해 미국 대통령 특사로 부임된 것인지에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게 된다. 그녀의 직위보단 그 대사 하나가 계속 뇌리에 남게 되는 것이다.

또, 키요코는 그 이후 별 다른등장이 없고, 가끔 종종 야구치를 만나 미국 쪽의 정보를 한 두번 던져주 듯 등장하는데, 미국과 UN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을 때 자신의 할머니를 아프게한 일을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대사를 치는데, 그 전까지 키요코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언급한 것은 1회, 일본이 자신의 할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을 야구치에게 알릴 때 이후로 없다. 그 뒤로 키요코가 자신과 할머니 사이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라던가 할머니를 위해서 일본에 또 다시 핵을 떨어트릴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한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온 입장이라면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차라리 개연성이 맞는데, 야구치 계획을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막으려는 용도 하나로 영화의 서사에 넣었다는 것을 감독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키요코는 마지막까지 애매한 캐릭터를 띄는데, 개인 비행기에서 본인의 상관과 핵 발포 카운트 다운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키요코의 캐릭터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자네의 완전무결한 경력과 패터슨가에 오점이 남아. 40대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사라지게 돼”라는 상사의 대사가 결정적이었는데, 완전무결한 경력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특사까지 오른 키요코가 야구치와의 첫 만남에서 “자라는 어디 있어?”라고 묻는 다는 것 자체가 전혀 연관되지 않을뿐더러, 40대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키요코의 꿈을 백인 남성 상사가 대신 관객에게 알려야하는, 키요코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곤 마지막에 야구치에게

“너는 일본 총리,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만나자”라는 대사를 써서 마치 그녀의 캐릭터의 존재를 황급히 주워 담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까지한다. 추가로, 많은 리뷰에서 보면 키요코 앤 패터슨 역을 맡은 이시하라 사토미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많이 보였으나 그녀의 캐릭터의 문제점이라던지, 그녀의 영화 속 역할에 대한 리뷰는 많이 보지 못했다.

반면에, 환경성의 히로미는 오히려 영화 시작 13분 뒤부터 꾸준히 스크린에 등장하며 대책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곤 하는데 조연으로 표기 되어 있고, 많은 리뷰들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캐릭터로 표시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히로미의 캐릭터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처음 “이 생물은 육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무시당한 건 이 정보가 국민들에게 발표될 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내보낼 수 없다고 기각된 것이었다. 단지년 여성이니까, 또는 직급이 낮으니까라는 이유로 무시 당한 것을 아니었다.

또, 고질라의 주요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히로미가 처음으로 “설마 핵분열?”이라는 실마리를 내던진다. 이때 같이 일하는 남성 직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며 핀잔을 주지만, 이 핀잔은 ‘여자 주제에 뭘 알아’라는 취지가 아닌, 그런 식으로 원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뺀 대사이다. 핵분열이 원동력이 맞다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그는 히로미에게 즉각 사과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으로 본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히로미가 많은 리뷰에서 이름도 모르는 캐릭터로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책 위원회의 대부분 또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들이다. 여성 캐릭터여서 이름이 잊혀진 것이 아닌, 대책 위원회의 이름으로 남겨진 캐릭터가 된 것이다. 또한, 그녀의 태도, 말하는 어투, 대사에서 이미 그녀의 개인적인 일 보다는 그녀의 커리어에 관심이 가고, 특별히 서사를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확실히 해낸 성공적인 대책 위원회의 일동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생각보다 잘 빌딩된 캐릭터이고, 조연으로 남기엔 아깝다는 것이다. 추가로, 히로미는 그 어느 리뷰에서도 외모로 이야기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키요코의 캐릭터 빌딩이나, <러브앤팝>에서 확실히 자극적, 문제적인 카메라 구도로 영화 내 여성 묘사에 대한 것이 안노 히데야키 감독의 여성 묘사측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고생들을 원조교제의 환경에 내밀게 하는 사회의 비판(정확히 말하자면 <러브앤팝> 원작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에 기반하여 기교를 부린 것 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환경성의 히로미와 같은 캐릭터를 보면 그의 여성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최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결론

지금까지 안노 히데야키의 영화 두편, <러브앤팝>과 <신고질라>를 비교하며, 그의 영화에는 어떤 구조 및 테마적 공통점들이 존재하고,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와 내가 감독의 영화를 보며 의아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탐구해 보았다.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며 왜 감독이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연출 했는지, 또는 캐릭터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안노 히데야키 감독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에반게리온 시리즈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기 힘들었다. 논문이나 아티클들이 많았다면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여성 캐릭터 묘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 또는 다른 분석 지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애초에 영화들을 연출할 때 그저 가벼운 마음에서부터, 짧은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캐릭터를 영화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더욱 완성도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관객이 나처럼 논문을 찾아보거나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진 않기 때문에 일차적인 관람 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완전한 동화나, 여성의 삶이 정확히 어떤지 느끼진 못하겠지만, 조금 더 친절한 방식으로 영화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확실히 <신고질라>는 <러브앳>과 다르다. 카요코 앤 패터슨의 캐릭터는 비었지만, 환경성의 과장인 히로미라는 캐릭터가 정말 괜찮게 빌딩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사실 <신고질라>가 안노 히데아키 혼자만의 작품이 아닌 히구치 신지 감독과의 공동 연출 작이어서 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환경성의 히로미 역만으로도 내가 위의 분석에서 의아해했던 부분들과는 다르게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다음 실사화 영화는 조금 기대가 간다.

## 참 고 문 헌

김유나, 정은혜 「여성주의 문화이론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여성 영웅 캐릭터 비교 분석 - 한 / 미 / 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 협회』 91pg ~ 119pg, 2014

영화 「Love & Pop」, 안노 히데아키, 1998

영화 「신고질라」, 안노 히데아키, 2017